

한 의사들에게 적합한 고문헌 지식체계에 대한 고찰

-『東醫寶鑑』증보를 중심으로-

김우영¹ · 권오민^{1*}

A Study of Classic Korean Medicine Knowledge System which is Suitable for Korean Medicine Doctors

-The process of expanding DONGUIBOGAM-

Kim Wu-Young¹ · Kwon Ohmin^{1*}

¹Medical History & Literature Research Group,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determine both what information Korean Medicine(KM) doctors want from medical classics and how classic KM knowledge should be structured.

Methods: KM doctor survey was conducted in October 2012 via E-mail to determine what information Korean Medicine doctors want to collect from a larger volume of existing classics. Specialist survey was made in October 2012 through questionnaire and 8 workshops were held between April 2012 ~ February 2013 to discuss how to reorganize classic KM knowledge.

Results: With two surveys and 8 workshops, we built a conceptualization of the classic KM knowledge system for KM practice. KM doctors wanted to engage with the design of KM knowledge system informed by authentic medical classics, and hoped that more information on common disorders would be added to the table of contents of classic KM books than now. A comprehensive knowledge system was also required to maximize information sharing.

Conclusions: Future KM knowledge systems need to be more comprehensive and include more information about disorders with which patients commonly consult KM doctors.

Key words : Korean Medicine, Knowledge System, Medical Classics, New DONGUIBOGAM

I. 서 론

신동의보감 발간사업은 『東醫寶鑑』 발간 400주년(2013년)을 맞이하여 『東醫寶鑑』의 집필 정신을

이어받고, 나아가 『東醫寶鑑』 이후의 한의학 지식을 집대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신동의보감 발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東醫寶鑑』 증보는 『東醫寶鑑』 이외의 고문헌 속에 담겨있는 한의학 지식을 임상에게 필요한 지식위주로 취합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의 한의사들은 임상적이고 실전적인 내용이 위주가 된 한의학 지식체계를 원한다.¹⁾ 그에

* 교신저자 : 권오민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그룹
E-mail : fivemink@kiom.re.kr
투고일 : 2013년 6월25일 수정일 : 2013년 7월30일
게재일 : 2013년 7월30일

반해 그 동안의 고전문헌연구는 번역한 고전문헌을 바탕으로 역대학설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주로 진행되어 왔다.²⁾ 기존의 고문헌 연구방식과 현대 한의사들의 임상적인 요구 사이의 괴리는 『東醫寶鑑』을 증보하는 과정 중에 도출되었고, 한의사들의 고문헌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지식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본 논문은 『東醫寶鑑』 이후의 한의지식 ‘증보’를 기획하는 과정 속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안과 논의과정을 보고한다. 이를 통해 현대 한의사들이 요구하는 고문헌 지식체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현재 구현 가능한 고문헌 지식체계와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대상 및 방법

한의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東醫寶鑑』 증보의 집필진, 기술방식, 목차설정, 증보대상서적에 대한 한의사들의 요구사항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파악하였다. 8회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현 시점에서의 고문헌 관련 연구의 한계와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료를 검토하였다.

1. 원전·의사학분야 전문가, 임상 한의사가 참여한 워크숍

Table 1. 워크숍 진행 과정

차수	일자	워크숍 특성	참여자수
1	2012.04.26.	원전·의사학회 공동	20
2	2012.06.04.	한의학연구원 내부	11
3	2012.07.09.	한의학연구원 내부	9
4	2012.09.06.	한의학연구원 내부	6
5	2012.09.10.	한의학연구원 내부	9
6	2012.10.13.	원전·의사학회 공동	20
	2012년 10월	한의사 설문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 시행	
7	2012.11.22.	원전·의사학회 공동	11
8	2013.2.21~22.	실무자 워크숍	8

8번의 워크숍에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Table 1). 『東醫寶鑑』 증보를 기획하는 과정 중에 도출된 논의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여, 현재 한의계의 연구역량으로 구현가능하고 한의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문헌 지식체계를 도출하였다.

2. 한의사 설문조사

한의사 설문조사는 대한한의학협회에 등록된 한의사 15,456명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10일 ~ 10월 31일 사이에 E-mail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318건의 응답회수를 받았다. 설문이 미완료되었거나 문항에 오류가 있는 69건을 제외한 249건을 분석하였다. 설문문항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논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한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東醫寶鑑』 증보에 관한 한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점검하였다.

3. 원전·의사학분야 전문가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조사는 고문헌 관련 연구를 최근까지 진행하고 있는 원전·의사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12인을 대상으로 설문지형태로 실시하였으며, 회수율은 50%였다. 설문문항은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논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원전·의사학분야 전문가의 『東醫寶鑑』 증보에 관한 전문가 견해를 구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한의사 설문조사와 비교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집필진

한 의사 설문조사 결과 집필진에 대해서는 ‘각 분야 전문학회의 추천인사가 임상개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161건(64.7%)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각 분야의 대표적인 임상 개원인가 전문 학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47건(18.9%)이었다(Fig. 1).

2. 기술방식

2012년 6월 4일과 2012년 7월 9일의 워크샵에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식들을 여과없이 추가하여 database와 비슷한 형태로 증보할 것인지 전문가가 필요한 지식 위주로 취사선택하는 형식으로 증보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Database와 같은 형식으로 된다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한의문헌 지식의 집대성이 이루어질 것이고, 전문가가 지식을 취사선택하는 형식으로 증보한다면 요약적이게 될 것이라고 보고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연구자간의 팽팽한 의견차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백과사전처럼 정보를 찾

아보는 고문헌 지식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연구자들은 포괄적인 집대성을 주장하였고, 임상 활용에 용이하여야 된다고 보는 연구자들은 요약적인 형태의 지식체계를 주장하였다.

한 의사 설문조사 결과 한의문헌 지식의 포괄적인 집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7.4%로 가장 많았다(Fig. 2). 전문가 설문에서는 67%가 요약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보았고, 33%가 요약적으로 기술한 ‘요약판’과 폭넓게 집대성한 ‘포괄적 집적판’을 동시에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3. 목차설정

기존 『東醫寶鑑』 목차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목차를 기획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진·의사학회 공동주체 워크샵(2012년 10월 13일)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東醫寶鑑』 목차를 활용한다면, 『東醫寶鑑』과 목차구성이 많이 다른 서적인 경우 증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東醫寶鑑』과 비슷한 목차체계로 구성된 『濟衆新編』을 『東醫寶鑑』 목차에 맞춰 증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편찬체계가 다른 『景岳全書』, 『醫宗金鑑』과 같은 책을 증보하기 위해서는 『東醫寶鑑』 형식

Fig. 1. 집필진에 대한 한 의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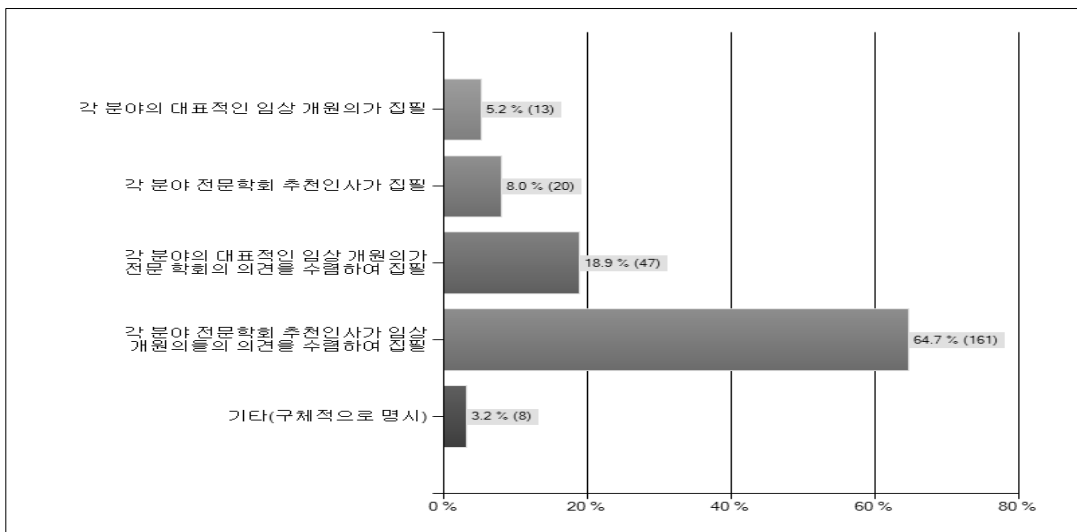


Fig. 2. 『東醫寶鑑』 증보의 기술방식에 대한 한의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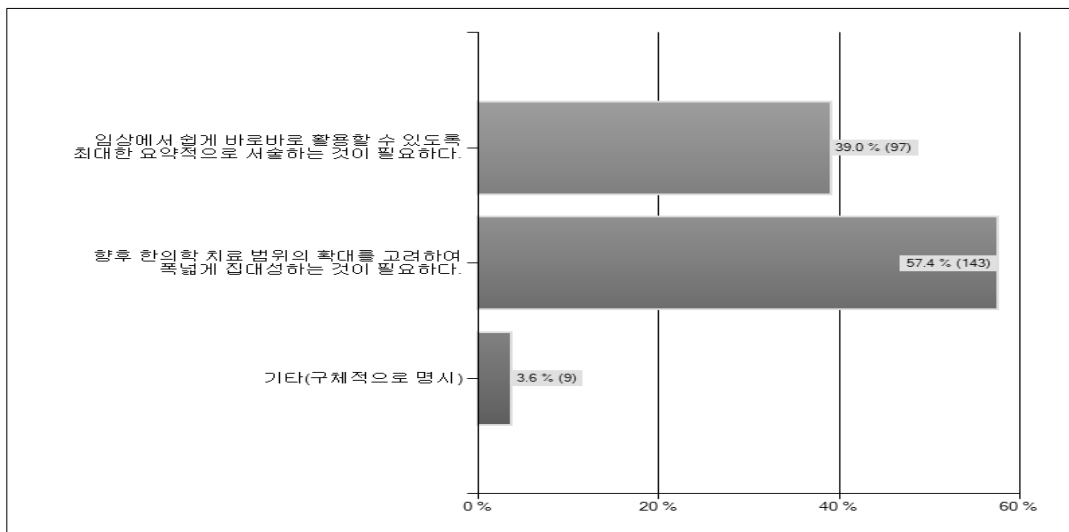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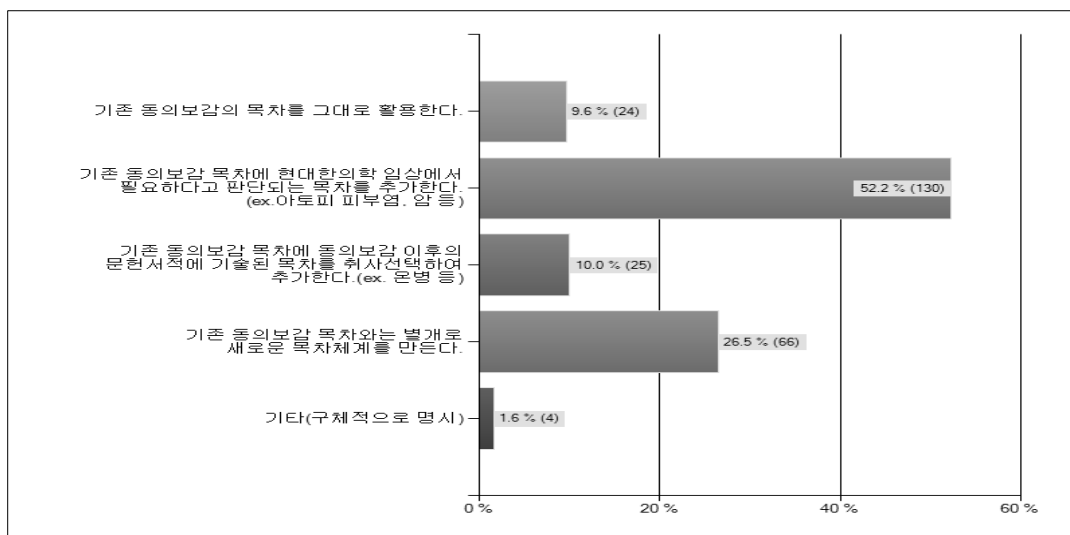


Fig. 3. 『東醫寶鑑』 증보 목차에 대한 한의사 설문조사 결과



에 맞춰 증보대상서적의 내용을 재가공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東醫寶鑑』과 다른 새로운 목차를 만들자는 의견 중에는 消渴, 黃疸과 같은 질병사 위주로 정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질병사 위주로 정리한다면 임상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특정질환을 통시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제시되었으

나, 현재까지 질병사위주로 정리된 연구가 부족하고 학계에 합의된 연구방식이 없다는 반론이 있었다.

또한 『東醫寶鑑』 이후에 개념화된 병증을 목차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清代에 급속히 발전된 溫病의 처리방식의 대해 토론이 있었다. 『東醫寶鑑』에 溫病이 반영되

어 있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증보해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한반도에서는 『東醫寶鑑』의 瘟疫 등을 통해서 중국에서 溫病으로 개념화된 병증을 치료할 수 있었고 溫病을 증보하면 『東醫寶鑑』을 통해 유지되는 일관성이 훼손된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한 의사 설문조사에서는 기존 『東醫寶鑑』 목차에 현대 한의학 임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차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다(Fig. 3). 기존 『東醫寶鑑』 목차에 온병과 같은 후대 한의학문의 중요 목차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나 아토피피부염과 같은 현대 한의학에서 중요한 병증을 추가하기 희망하였다.

4. 『東醫寶鑑』 증보대상서적

증보대상서적의 시대범위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4명의 전문가가 시대범위의 시작년도를 1613년으로 추천하였고, 2명의 전문가가 종료년도를 1945년으로 추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증보대상서적의 시대범위는 1613 ~ 1945년으로 정해졌다. 전문가추천이나 한 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시대범위 밖의 서적도 추가하기로 하되, 명확한 판단근거를 제시하기로 논의되었다.

‘한 의학을 공부하거나 임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의학 문헌자료(의서, 처

방집, 특정인의 강의록 등)’에 대한 한 의사 설문조사 결과, 10회 이상 추천된 고문헌 자료는 『東醫寶鑑』, 『傷寒論』, 『東醫壽世保元』, 『黃帝內經』, 『醫學入門』, 『方藥合編』, 『晴崗醫鑑』, 『景岳全書』 순이었다(Fig. 4).

원전·의사학 전문가 5인의 실무자 워크샵(2013년 2월 27일)에서 한 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증보대상서적이 확정되었다(Table 3). 증보대상서적은 ‘『東醫寶鑑』 이후에 한국에서 발간된 중요 한의학 서적’과 ‘한의학에 영향을 미친 중요 중국의서’ 위주로 선정되었다. 『東醫壽世保元』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東醫寶鑑』과 구성체계가 너무나 다르고 신동의보감에서 독자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였고, 『方藥合編』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너무 많은 增補가 이루어져서 아직 정본으로 삼을만한 판본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³⁾ 1590년에 간행된 『本草綱目』은 『東醫寶鑑』에 관련 의학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한국 한의학에 영향을 준 의서로 평가되어 4)5)전문가 추천으로, 1984년에 간행된 『晴崗醫鑑』은 ‘한 의학을 공부하거나 임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의학 문헌자료(의서, 처방집, 특정인의 강의록 등)’에 대한 임상한 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증보대상서적에 추가되었다.

Table 2. 『東醫寶鑑』 증보대상서적의 시대범위 설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	시대범위	선정의 이유
1	1613 ~ 1945년	무응답
2	1613~현재까지	• 지속적으로 『東醫寶鑑』을 개정증보한다는 관점에서 하한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1613~1945년	• 시작점(1613년)의 이유: 『東醫寶鑑』 간행년도 • 종료점(1945년)의 이유: 1945년 이후의 저작 중 중요한 것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추가
4	1613~한의 대교과서편찬	• 종료점(한의대교과서 편찬):공통교과서 편찬이전에는 지속적으로 『東醫寶鑑』 영향권 안에 있었음.
5	『東醫寶鑑』전후 ~가장 최근	• 시작점(동의보감 전후):『東醫寶鑑』 전후를 살펴봐야 그 즈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서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료점(가장 최근):가장 최근의 내용까지 반영한다.

Fig. 4. 한의학 공부와 임상에서 중요한 문헌 자료에 대한 한의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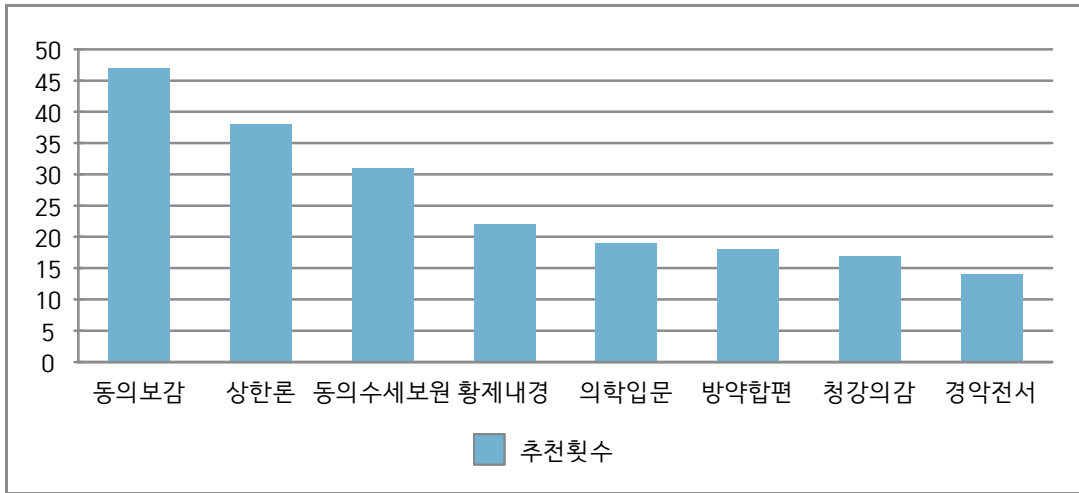


Table 3. 『東醫寶鑑』 증보대상서적 목록

서적명	편찬 혹은 간행년도	저자
本草綱目	1590(간행)*	李時珍*
景岳全書	1624(편찬)*	張介賓*
醫方集解	1682(간행)*	汪昂*
舟村新方	1687(편찬)*	申旻*
辨證錄	1687(간행)*	陳士鐸*
石室秘錄	1687(간행)*	陳士鐸*
醫門寶鑑	1724(편찬)*	周命新*
醫宗金鑑 「刪補名醫方論」 「外科心法要訣」	1742(간행)*	吳謙*
臨證指南醫案	1766(간행)*	葉桂*
廣濟秘笈	1790(편찬)*	李景華*
濟衆新編	1799(간행)*	康命吉*
本草類函要領	1833(편찬) [†]	玄在德 [†]
醫宗損益	1868(편찬)*	黃度淵*
袖珍經驗神方	1913(간행) [†]	李麟宰 [†]
醫方新鑑	1915(간행) [‡]	韓秉璉 [‡]
醫鑑重磨	1906(편찬), 1922(간행)*	李圭峻*
一金方	1927(편찬), 1928(간행) [§]	金弘濟 [§]
晴崗醫鑑	1984(간행) [?]	金永勳 著, 李鍾馨 編 [?]

* : 동양의학대사전⁶⁾

† : 한국한의학연구원 고전국역총서⁷⁾⁸⁾

‡ : 韓醫藥書攷⁹⁾

§ : 한의고전명저총서 해제<<http://jisik.kiom.re.kr>>¹⁰⁾

? : 晴崗醫鑑¹¹⁾

IV. 고찰

최근에 와서 한의학적으로만 진단하고 치료하는 한의사의 비율이 16.9%에 불과할 정도로, 1) 대부분의 한의사는 한의학 지식과 양방의학 지식을 모두 임상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환경에서 한의사가 고문헌에서 요구하는 한의학 지식은 과거와는 다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東醫寶鑑』 증보를 기획하는 동안 한의사들이 고문헌에서 요구하는 고문헌 지식과 문헌 연구자들이 판단하는 구현 가능한 지식체계 사이의 현실적인 접점이 도출되었다.

집필진 구성에서 한의사들은 ‘각 분야 전문학회의 추천인사가 임상개원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필’(64.7%)을 희망하여 ‘각 분야 전문학회 추천인사가 집필’(8.0%)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한의사들이 전문가의 권위를 인정하나 임상개원의들의 관점이 반영되길 희망함을 알 수 있다.

기술방식에 있어, 2차례의 워크숍(2012년 6월 4일, 2012년 7월 9일)에서 고문헌이 임상활용에 용이하기 위해서는 요약적으로 집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고문헌 전문가들도 신동의보감의 주 독자층이 임상 한의사임을 고려하여 ‘향후 한의학 치료 범위의 확장 가능성 고려하여 한의학 문헌 근거의 외연확대를 위한 포괄적 기술’ 보다는 ‘임상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백과사전적 기술을 지양하고 요약적 기술’에 좀 더 많은 의견을 주었다. 그러나 실제 한의사 설문조사에서는 한의문헌 지식의 포괄적인 집대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57.4%)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한의사들은 가능한 많은 양의 고문헌 지식에 접근하기 희망함을 알 수 있었다. 많은 한의사들이 고문헌을 임상의 참고서적으로 활용하기 희망한다는 방증일 수 있다.

한의사들은 새로운 목차를 만들거나(26.5%), 『東醫寶鑑』 목차를 그대로 활용(9.6%)하기보다는 『東醫寶鑑』 목차를 기반으로 보완하는데 가장 많은 의견(62.2%)을 주었다. 『東醫寶鑑』 목차를

수정·보완할 때, 온병과 같은 『東醫寶鑑』 이후 문헌에 출현한 중요 병증보다는 현재 임상에서 활용가능한 아토피피부염, 암 등과 같은 병증에 대한 목차추가를 희망하였다. 이를 통해 한의사들은 의사학적으로 가치 있는 병증보다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병증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고, 고문헌이 임상에 기여하기 희망함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 목차와는 다른 새로운 목차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일부 고문헌 연구자들은 임상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병사적인 정리를 추천하였다. 『東醫寶鑑』의 경우 의학내용의 충실함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너무 浩繁하다는 평가도 있어왔다.¹²⁾ 질병사는 이러한 『東醫寶鑑』의 단점을 극복하고 중요한 의학정보를 정리된 형태로 한의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으나, 학계의 합의된 연구방식이 없고 임상적인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고문헌 전문가가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현시점에서 구현하기 힘들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임상개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증후·질병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개념과 용어를 정리하고, 임상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제시해주는 방식의 질병사 연구는 고문헌 및 임상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도출되었다. 논의과정 중에 제시된 기존의 대표적인 질병사 연구로는 젓몸살¹³⁾과 消渴¹⁴⁾이 있었다.

증보할 고문헌 선정에는 한의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문헌과 고문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서적위주로 이루어졌다. 증보대상서적의 시대 범위 설정에서 시작년도인 1613년은 『東醫寶鑑』이 간행된 해¹⁵⁾이고 종료년도인 1945년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한의학지식이 재평가되는 기준이 되는 해¹⁶⁾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의학 문헌 자료에 대한 한의사 설문조사에서 『東醫寶鑑』, 『傷寒論』, 『東醫壽世保元』이 가장 많이 추천된 것은, 『東醫寶鑑』, 『傷寒論』에 기초한 한의학과 사상의학이 한의임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V. 결 론

1. 한의사들은 한의학 지식체계 구축에서 임상 의들의 관점이 반영되길 바란다.
2. 한의사들은 고문헌 지식이 요약적, 함축적으로 정리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지식이 집대성되길 원한다.
3. 한의사들은 의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병증에 대한 지식보다는 현대 한의임상과 관련된 병증에 대한 고문헌 지식을 원한다.
4. 특정 증후·질병에 대한 한의학적인 개념과 용어를 정리하고, 임상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제시해주는 방식의 질병사 연구는 현재 고문헌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VI. 감사의 글

-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신동의료보감> 편찬 사업-역사문헌 증보와 현대한의 지식 통합(K1338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토론에 참여해주신 익명의 학계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VII. 참고문헌

1. 손미주, 김우영, 정의민, 박황진, 한창현. 한의사들이 원하는 한의학 지식체계에 대한 고찰. 대한예방의학회지, 16(3):89-105, 2012.
2. 이병욱. DB를 활용한 문헌연구(2). 대한한의정보학회지, 10(2):70-76, 2004.
3. 오병건, 박경남, 맹웅재. 《方藥合編》中 <活套鍼線>에 관한 板本學的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2):169-236, 2007.
4. 오재근, 윤창열. 『本草綱目』이 『廣濟秘笈』에 미친 영향 분석 - 「鄉藥單方治驗」을 중심으로-.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2(3):337-346, 2009.

5. 김홍균. 『本草精華』의 解題에 관한 醫史學的 접근. 韓國醫史學會誌, 24(2):25-55, 2011.
6.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7. 이인재. 국역수진경험신방 I.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p.238, 2008.
8. 현재덕. 국역본초유함요령.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p.1, 2011.
9.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715, 1987.
10. 한국한의학연구원. 고문헌 해제정보. 한의고전명저총서 2010[cited 2013 April 24]. Available from: <http://jisik.kiom.re.kr>.
11. 金永勳 著. 李鍾馨 編.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1984.
12. 지창영. 제증신편과 동의보감의 비교연구. 韓國醫史學會誌, 21(2):135-147, 2008.
13. 이선영. 모유수유 중 발생하는 젖몸살에 대한 의과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1-80, 2011.
14. 조선영, 유원준, 안상우, 김남일. 한국 한의학에서 소갈 분류의 형성과정.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13(2):1-14, 2007.
15.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p.319, 1993.
16. 엄석기, 김세현, 최원철. 전통한의학 연구방법론의 현대화에 대한 小考-역사적 근거중심 의학에 대한 제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2):89-105, 2010.